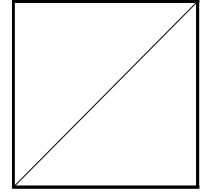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0. 1. 15. (제 1 차)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금융감독원장 윤 석 현
제출 연월일	2020. 1. 15.

1. 보고 주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수립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 이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금감원의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검사업무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 리스크요인을 중심으로 중점 검사사항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위한 검사업무 운영 방식을 개선

나. 세부 검사 실시계획

리스크 중심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별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상시감시 결과 등에 따라 나타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부문검사를 실시*

* 2020년중 총 698회 검사에 21,546명의 연인원을 투입할 계획(전년과 유사한 규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

나. 기타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2020. 1.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 최근 검사환경 및 리스크 요인	1
II .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3
1. 검사업무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4
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나.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2.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	8
가.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 및 검사품질 개선	
나.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제고 및 소통채널 활성화	
다. 유관기관 협력 및 검사 역량 강화	
III . 2020년 세부 검사계획	12
1. 개 황	12
2. 종합검사	13
3. 부문검사	13
4. 지원검사	15
5. 공동검사(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16
(붙 임)	
1. 검사대상 금융회사 현황	17
2. '20년도 종합검사 핵심부문	18

I. 최근 감사환경 및 리스크요인

① 저금리 기조하에 불건전 영업·손실위험 증가 및 시장 불확실성 상존

-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소비자의 고수익상품 추구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 우려
- 저금리 고착화에 따른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로 위험자산으로의 투자 유인이 커지면서 손실위험 등 잠재리스크 증가

* 은행, 저축은행 등 수신금융기관의 순이자마진(NIM) 하락, 보험사의 금리역마진 현실화 등

-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분쟁, 브렉시트('20.1.31.) 등 정치·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상존

⇒ (리스크요인) ① 경쟁심화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 가능성, ② 위험자산 투자 쏠림으로 손실위험 증가, ③ 금융시장 불확실성

② '공정한 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DLF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확산*

* '19.1~9월중 분쟁민원은 21,62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7%(+770건) 증가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 상품판매관련 특별이익 제공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도 여전*

* 보험사기 연루 혐의자 현황 : '17년 46명 → '18년 24명 → '19년 25명
특별이익을 제공한 연금사업자 지속 적발(임직원 제재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 (리스크요인) ④ 금융소비자 불신 증가, ⑤ 불공정 금융거래 지속

③ 금융의 Digital Transformation과 복잡한 금융거래·상품의 출현

- 혁신금융이 태동*하면서 금융시장에 내재된 리스크가 더욱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

* 혁신금융사업자 출현('19.12월말 기준 혁신금융서비스 77건, 지정대리인 27건 지정)

** 혁신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회사의 자기규율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중요(금감원의 검사만으로는 다양한 리스크를 모두 통제·관리하는 것에는 한계)

- 혁신금융,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금융의 Digital Transformation 심화에 따라 해킹, 정보유출 등의 IT리스크 증가
- 여러 금융권역의 금융회사간 협업, 교차거래 등을 통해 복잡한 신종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의 지속 출현*으로 신종위험 발생

* 증권사-자산운용사간 TRS거래,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간 금융투자상품 제조·운용·판매의 분업, 핀테크기업 및 P2P금융과 기존 금융회사간 제휴 등

⇒ (리스크요인) ⑥ 성공적인 혁신금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증대, ⑦ 혁신금융에 따른 IT리스크, ⑧ 여러 금융권역이 연계된 상품·거래 출현으로 신종위험 발생 가능성

④ 검사대상회사 지속 증가에 따른 검사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사모투자전문회사, 전자금융업자 등 기존 검사 대상회사가 급증*하고 P2P금융업이 신규 검사대상에 편입**되는 등 검사대상 지속 증가

* 검사대상기관 : '17년말 4,966개 → '18년말 5,491개 → '19.9월말 5,581개

** '20.8.2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 반면, 검사인력 규모는 수년째 정체*되어 있어 장기미수검 금융회사가 증가하는 등 검사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전체 검사역 수 : '17년말 453명 → '18년말 446명 → '19.9월말 463명

※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검사환경 변화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검사 실시를 위해서는 검사기간 및 검사인원 확대 필요

⇒ (리스크요인) ⑨ 중소형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 발생

⑤ 검사업무에 대한 외부의 문제의식

- 검사결과 처리 장기화*, 요구자료 과다 등의 수검부담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등 검사업무에 대한 부정적 문제의식이 존재

* 현재 가이드라인 성격인 '검사 표준처리기간'이 검사제재 규정에 반영될 예정('20.2월)

⇒ (리스크요인) ⑩ 검사업무 관련 금감원의 평판리스크

Ⅱ. 2020년도 감사업무 운영계획

목 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1. 중점 감사사항 (리스크 요인)

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집중 점검(☞ ①, ④)
- 생활밀착형 보험 판매 등 보험관련 영업행위 점검 강화(☞ ①, ④)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검사연계 강화(☞ ①, ④)
- 불합리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점검(☞ ④)
-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저해행위 근절(☞ ⑤)

나.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 집중 점검(☞ ②)
-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감시 강화(☞ ③)
- 금융제도·경영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③)
- 금융의 Digital Transformation 등 신 금융거래 환경의 위험요인 점검(☞ ⑦)
-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형·신규 금융회사 선별적 검사(☞ ⑨)

2. 감사업무 운영 방식 개선

가.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 및 검사품질 개선

-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 확립(☞ ⑧)
- 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 수검부담 완화(☞ ⑩)

나.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 제고 및 소통채널 활성화

-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유도(☞ ⑥, ⑨)
-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 등(☞ ⑩)

다. 유관기관 협력 및 검사 역량 강화

-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검사인력 교육·연수 실시(☞ ⑨, ⑩)

'20년 주요 리스크요인

- ①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 가능성, ② 위험자산 투자 쏠림,
- ③ 금융시장 불확실성, ④ 금융소비자 불신 확산,
- ⑤ 불공정 금융거래 지속, ⑥ 혁신금융 성공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 증대, ⑦ 혁신금융에 따른 IT리스크,
- ⑧ 다권역 연계 상품·거래 출현, ⑨ 검사 사각지대 발생,
- ⑩ 감사업무 관련 금감원의 평판리스크

◆ ①금융소비자 보호와 ②금융시스템 안정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 리스크요인을 중심으로 검사업무 기본방향을 수립

① (금융소비자 보호)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 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 집중 점검 실시

② (금융시스템 안정) 디지털 금융환경 확대,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집중 점검

-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 점검
-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 강화

□ 생활밀착형 보험 판매 등 보험관련 영업행위 점검 강화

-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

-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21년), 보험시장 포화 상태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 점검

* 감독규정 시행 전에 GA가 수수료 획득목적으로 부당계약을 집중 발생시킬 우려

- **보험회사** 검사시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

* GA 본사 및 소속 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여 조직적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

-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검사연계 강화**

-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

* 권역별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의 지표 보완 등을 통해 상시감시 고도화

** (예) **민원,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 포착 금융회사의 **자체개선 등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 실시**

-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 등 단계적 대응***

* (예) 위험요인 판별 후 ① 회사 면담, ② 소비자경보 발령, ③ 부문검사 실시 등

-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 유도**하기 위해 **검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 별도 구축***

* 현재는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는 주기적 실시하나,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 별도의 소통채널은 미 구축

□ **불합리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점검 강화**

-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 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점검**

□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저해행위 근절**

-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

나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 상품으로의 쏠림현상 집중 점검

-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 중점 점검
-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 점검
- 보험회사의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

* 계약전 알릴의무가 대폭 축소된 간편심사보험, 유병자 대상 건강보험 등

□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감시 강화

- 은행·지주의 '20년 경영계획상의 경영전략 내용을 분석하여 중점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상시감시 역량을 집중
-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및 맞춤형 감독 추진

* (예)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 역내 주력산업 부진 등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

- 외은지점을 국가별 및 노출된 리스크별로 그룹화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집중 실시*

* (예) 차이나 리스크 및 한·일 무역갈등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현재화되지 않도록 상시감시 강화

-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보험회사별 리스크 요인 및 자본 관리계획의 충실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성 악화에 선제 대응

□ 금융제도 · 경영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新예대출 시행, NIM 하락 등에 대응한 은행 경영 · 영업상 변화* 및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예) 해외진출 확대 및 기존 해외점포를 활용한 영업 강화, IB 업무 강화를 통한 수수료 수익 확대, 부동산 등 일부 업종 여신 쏠림현상 심화 등

-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부채 시가평가시 적용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일관성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을 점검

□ 금융의 Digital Transformation 등 신금융거래 환경의 위험요인 점검

- 혁신금융법 제정 후('19.4월)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시정 기회 부여

- 오픈뱅킹* ·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제휴를 통해 출현되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의 위험요소 점검 실시

*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19.10월 실시)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 검사 실시

□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형 · 신규 금융회사 선별적 검사

- 장기미수검 중소형사, 신규 영위업무·지배구조 변경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단계적 검사 실시 방안을 마련

* '19.7.1. 전자금융업자(146개사), 대부업자(77개사) 및 상호금융조합(2,231개사)이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대상에 편입

2 검사업무 운영 방식 개선

◆ 효과적인 검사, 신속·공정한 결과처리,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검사업무 운영의 효율화 추진

가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 및 검사품질 개선

□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 확립

-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판매가 이루어지는 고위험 금융상품 등의 Life Cycle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및 多권역 협업검사 체계 구축

【금융권역간 협업 실시(예시)】

- 은행 검사시 IT·외환·파생 등 전문분야의 감독·검사부서 인력 참여
- 보험사 보험금지급·영업 검사시 관련 손해사정 자회사, GA 연계 검사 실시
- 자산운용사의 TRS계약 등 업권간 교차 파생거래 관련 유관부서 합동검사 실시

- 다발, 특이 민원·분쟁의 발생 정보, 특정 영업부문 급증 동향 등 감독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테마 검사 대상 선정시 반영
-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19.4월)에 따라 종합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1년간의 운영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보완을 추진

□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검사 표준처리기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처리기간 준수실적 평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신속한 검사업무 처리 및 금융회사 통보

□ 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검사후 내·외부기관을 통한 검사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수검기관 입장에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피드백·소통을 강화**

* 종합검사 및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모두 실시하고 부문검사는 주요 검사를 샘플링하여 실시

** (예) 금융회사와 검사부서간 간담회 개최 등

【참 고】 검사품질점검 주요 내용 및 점검 절차 등

- **(주요내용)** 수검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검사절차 준수여부*** 및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검사품질’에 대한 체감도** 평가

*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검사품질관리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검사 수행 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항목을 점검항목으로 선정

- **(점검방식)** 수검회사 **임직원 면담** 및 **외부 설문조사**

- **(점검결과 환류)** 품질점검시 개선된 금융회사 의견* 중 **개선 필요사항**은 제도를 개선하여 반영하고, **검사원 교육****을 통해 **검사원의 인식 제고**

* 검사시 자료제출, 면담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으며 검사원의 태도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수검 금융회사 직원 대부분의 의견

** '19년 중에도 전체 검사원 종합연수, 검사팀장·반장 연수, 종합검사 검사원 연수(2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

□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 지속

- 필요한 검사는 충분히 실시하되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검사 운영 지속 노력*

* 종합검사시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자료요구 최소화, 과도한 검사 연장 금지, 종합검사 1개월전 사전통지 의무화, 검사결과 신속처리 등 이행

- 자율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중요 검사현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 수검부담도 완화

나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 제고 및 소통채널 활성화

□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유도*

* 혁신금융 등 새로운 금융환경 조성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복잡·다양해진 반면,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토록하고, 금감원은 검사시 자체감사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데 집중

-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감사 계획 및 실적 등을 분석하여 내부감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

* 내부감사 우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위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감사내역 및 조치실적, 내부 통제 체계 등을 테마검사 대상 선정시 반영
- 경미사항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등 감독목표에 부합하는 주제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로 선정*

*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기 회사의 핵심 리스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율주제'를 확대하고 동 주제 선정의 적정성을 금감원이 평가

- 금융회사의 내부감사결과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현장검사시 평가하여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 도모
- 금융회사의 자체감사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및 시정시 과태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경*하여 인센티브 부여

* 자진신고시 과징금·과태료 감경비율을 확대(30%→50%)토록 검사·제재규정 개정 예정('20.2월)

□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

- 금융회사와 다양한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검사 현안사항 및 타사의 주요 지적사례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자율개선 유도

* 업무설명회, 내부통제워크숍, 이사회 의장·상임 감사위원 간담회, 지방은행 순회 간담회, RM팀과 담당 금융회사 실무자간 정기적인 면담 등 실시

- 종합검사 착수 전 파트너십 미팅*을 실시하여 검사방향 등을 설명하고 검사 후에는 사외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검사 수용도 제고

* 금감원 검사담당 임원, 국장 등과 금융회사 대표이사, 감사 등 주요 경영진 참석

□ 연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검사휴지기 대외 공표

- 중점검사사항을 포함한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검사휴지기*를 발표하여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가능성 제고

* 검사휴지기도 긴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하거나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검사

['20년도 검사 휴지기]

- ▶ 하계휴가('20.7.27 ~ '20.8.7.), 연말연시('20.12.23 ~ '21.1.3.), 연휴기간('20.4.30~5.5) 및 대체휴일을 포함한 명절(설, 추석) 전·후 3일 기간은 현장검사 자제

다 유관기관 협력 및 검사 역량 강화

□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동검사 등 협력 강화

- 공동검사(한국은행·예보)외에도 예보의 인력을 현장검사시 지원 받는 등 검사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공고화

*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간 검사업무 지원에 관한 합의서」 체결('19.11월)

□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 검사아카데미, 검사역 종합연수, 검사반장 연수 등 검사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연수 실시
-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통찰을 배양하기 위해 금융부분 핵심 주제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 특강 활성화

Ⅲ. 2020년도 세부 검사계획

- ◆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취약부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중심 검사체계 확립

1 개 황

□ (검사횟수 · 연인원) '19년 989회 (21,346명) → '20년 698회 (21,546명)*

* 예비 검사 158회(3,311명) 포함, 금융사고, 이슈사항 검사 등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검사수요에 조기대응하기 위해 "예비 검사"를 별도로 편성

○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291회 감소(23회 감소)*, 검사연인원은 200명(0.9%) 증가하는 등 예년과 비슷한 규모

* '19년중 대부업관련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일제 서면검사 268회 실시에 따라 예년과 달리 횟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동 건 제외시 전년대비 검사횟수 23회 감소

○ (종합검사) '19년 15회 (5,758명) → '20년 17회 (6,129명), ↑ 2회(371명)

○ (부문검사) '19년 974회 (15,588명) → '20년 681회 (15,417명)*, ↓ 293회(171명)

* 예비목적 검사 158회(3,311명) 포함

- (현장검사) '20년 512회 (14,550명), 전년대비 42회 증가(연인원은 209명 감소)

- (서면검사) '20년 169회 (867명), 전년대비 335회 감소(연인원은 38명 증가)

2020년도 연간 검사계획*

(단위 : 회, 명, %)

구 분	검사실시 횟수				검사연인원			
	2019**	2020	증 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종합검사	15	17	+2	+13.3	5,758	6,129	+371	+6.4
부문검사	974	681	△293	△30.1	15,588	15,417	△171	△1.1
현 장	470	512	+42	+8.9	14,759	14,550	△209	△1.4
서 면	504	169	△335	△66.5	829	867	+38	+4.6
합 계	989	698	△291	△29.4	21,346	21,546	+200	+0.9

* 예비검사 포함

** '19.12.31일 기준 잠정 실적

2 종합검사

- (검사횟수 · 연인원) '19년 15회 (5,758명) → '20년 17회 (6,129명)로 전년대비 2회(371명) 증가*(생보사, 손보사, 자산운용사 각 1회 증가)

* 보험권역은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를 전년대비 3회 축소하고 종합검사를 2회 증가할 예정

- 금융권역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핵심부문** 위주로 검사 실시

* '19.4.3. 발표한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의 평가지표 사용

** (붙임 5) '20년 금융권역별 종합검사시 핵심부문

2020년 권역별 종합검사 계획

(단위 : 회, 명, %)

구 분	검사횟수			검사연인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증감률
은행·지주	6	6	-	2,247	2,530	+283	+12.6
보 험	4	6	+2	1,949	2,200	+251	+12.9
증 권 사	3	3	-	1,067	1,044	△23	△2.2
중소서민	2	1	△1*	495	215	△280	△56.6
자산운용사	-	1	+1	-	140	+140	-
합 계	15	17	+2	5,758	6,129	+371	+6.4

* '19년 신협중앙회 실시

3 부문검사

- (검사횟수 · 연인원) '19년 974회(15,588명) → '20년 681회(15,417명)로 전년대비 293회*(171명) 감소

* '19년도 대부업 일제 서면검사 268회 제외시 전년대비 검사횟수 25회 감소

2020년 권역별 부문검사 계획

(단위 : 회, 명, %)

구 분	검사횟수				검사연인원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은 행	63	85	+22	+34.9	2,707	3,044	+337	+12.4
보 험	197	76	△121	△61.4	2,785	2,850	+65	+2.3
금융투자	119	95	△24	△20.2	2,395	2,236	△159	△6.6
중소서민	439	264	△175	△39.9	4,965	4,395	△570	△11.5
기 타*	156	161	+5	+3.2	2,736	2,892	+156	+5.7
합 계	974	681	△293	△30.1	15,588	15,417	△171	△1.1

* IT핀테크전략국 등 기능별 검사부서와 지원

※ [참고] 부문검사의 유형은 검사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① (검사실시 부문) 영업행위 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중점
건전성 검사: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경영 유도에 중점
- ② (위규적발 목적) 평가성 검사: 리스크 평가를 주 목적으로 한 컨설팅 방식의 검사
준법성 검사: 관련 법규 위규사항 적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중심의 검사

□ (영업행위 · 건전성) 과거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를 확대*

* 부문검사 중 영업행위 검사 비중(검사연인원 기준) '19년 56.4% → '20년 71.2%

- 건전성 검사는 상시감시 활동 강화, 종합검사 실시 등으로 포섭되어 부문검사를 통한 건전성 검사 비중은 축소

□ (평가성 · 준법성) 금융회사 미흡사항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검사 방식 지향으로 평가성 검사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 부문검사 중 평가성 검사 비중(검사연인원 기준) '19년 11.0% → '20년 16.1%

- 영업행위 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준법성 검사방식이 많아 준법성 검사의 절대 비중은 높은 편(83.9%)

검사 유형별 부문검사 계획

(단위 : 회, 명, %)

구 분	검사횟수				검사 연인원			
	2019	2020	증감	증감률	2019	2020	증감	증감률
영업행위 검사	791	492	△299	△37.8	8,794 (56.4)	10,970 (71.2)	+2,176	+24.7
건전성 검사	183	189	+6	+3.3	6,794 (43.6)	4,447 (28.8)	△2,347	△34.5
부문검사 계	974	681	△293	△30.1	15,588	15,417	△171	△1.1
평가성 검사	58	107	+49	+84.5	1,719 (11.0)	2,489 (16.1)	+770	+44.8
준법성 검사	916	574	△342	△37.3	13,869 (89.0)	12,928 (83.9)	△941	△6.8
부문검사 계	974	681	△293	△30.1	15,588	15,417	△171	△1.1

* 괄호는 전체 부문검사 합계 대비 비중(%)

4 지원(支院) 검사

□ 본원 검사부서는 지원*의 관할지역에 소재한 금융회사(영업점 포함)에 대한 부문검사 일부를 위임

* 「조직관리규정」상 본원에서 4개 광역시 지원(검사팀 존재)에 검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非광역시 지원(별도 검사팀 없음)은 민원관련 검사만을 위임

○ '20년 지원에 위임할 검사는 부산 등 4대 광역시 지원에 총 52회로 '19년 실적(42회) 대비 10회 증가*

* 최근 3개년간 지원 검사 실적 : '17년 76회 → '18년 51회 → '19년 42회
지원은 검사인력이 적어 문책사항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검사 실시 횟수의 변동이 큼

○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31회, 59.6%), 보험 영업점·대리점(11회) 및 은행 영업점(10회) 등이 위임검사 대상*

* 검사대상 금융회사(영업점) 선정은 각 검사부서와 각 지원이 협의하여 결정

○ 지원은 민원에서 제기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영업점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을 주로 검사할 예정

2020년 지원 앞 검사위임 계획

(단위 : 회, %)

구 분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합 계	'19년 실적	'19년 대비 증감
은행(영업점)	2	3	2	3	10	10	-
중소서민	5	10	8	8	31	24	+7
(상 호 금 융)	3	8	6	7	24	19	+5
(저 축 은 행)	1	1	2	1	5	5	-
(여 전 사)	1	1	-	-	2	-	+2
보험회사(영업점)	3	2	2	4	11	8	+3
(보 험 회 사)	2	2	2	4	10	7	+3
(보험대리점)	1		-	-	1	1	-
'20년 위임계획 계	10	15	12	15	52	42	+10
'19년 검사실적	5	12	12	13	42	-	-
'19년 대비 증감(회)	+5	+3	-	+2	+10	-	-
'19년 대비 증감률(%)	+100	+25.0	-	+15.4	+23.8	-	-

□ 우리원 검사부서는 검사계획 수립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대상회사 및 검사범위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실시

○ 한은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10회 내외)으로 공동검사 실시 예정 (검사 대상은 미정)

○ 예보는 MOU상 공동검사 의무실시 대상인 6개 저축은행과 다른 권역은 예년(4개)과 비슷한 규모에 건전성검사 위주로 공동검사 실시 예상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상호저축은행법」 §21①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 1회 이상 공동검사 실시

- 공동검사와 별개로 필요시 예보 인력을 지원받아 현장검사에 활용할 예정*

*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간 검사업무 지원에 관한 합의서」 체결('19.11월)

□ 공동검사 업무 개선 및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한은·예보와 공동검사 워크숍을 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

* 공동검사 실무진의 참여를 높이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연1회(1박2일)에서 연2회(당일)로 확대하고 시기도 연말에서 연초 및 하계휴가 검사휴지기(8월)로 변경

최근 5년간 한은·예보 공동검사 실시 현황

(단위 : 회)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한 은(A)* (괄호 안은 회사수)	10(23)	9(20)	10(19)	8(19)	9(19)
은행 및 지주	7(20)	6(17)	6(15)	5(16)	6(16)
금융투자	3	3	4	3	3
예 보(B)	9	10	9	8	12
은 행	-	1	1	1	1
저축은행	6	6	5	4	8
금융투자	1	1	1	1	1
보험회사	2	2	2	2	2
합 계(A+B)	19	19	19	16	21

붙임 1 | 검사 대상 금융회사 현황

□ '19.9월말 기준 5,581개('18년말 5,491개 대비 90개 증가)

구 분	검사 대상 금융회사	회사수
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JB금융지주	10
은행부문	시중은행(6), 지방은행(6), 인터넷전문은행(2), 특수은행(5), 외국은행 국내지점(36)	55
중소서민 부문	상호저축은행(79), 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1,118), 수산업협동조합(90), 산림조합(137), 신용협동조합(88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카드사(8), 할부금융(23), 리스(25), 신기술사업금융(56), 대부업자(1,275) ³⁾ ,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3,703
보험부문	생명보험사(24), 손해보험사(17), 외국손해보험사 국내지점(1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59
금융투자 부문	증권회사(45),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11), 선물회사(5), 신용평가회사(4), 채권평가회사(4), (전업)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4),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등)(228), 종금사(1), 자금중개·외국환중개회사(10), 자산운용회사(260), 투자자문회사(186), 사모투자전문회사(612), (전업)일반사무관리회사(7), 선박운용회사(5), 선박투자회사(119), 부동산신탁사(11), 펀드온라인코리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9)	1,529
기타부문	소액해외송금업자(26), 전자금융업자(106) ²⁾ , 신용정보업자(29),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가통신업자(27),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⁴⁾ , 혁신금융사업자(22) ⁵⁾ , 지정대리인(10) ⁶⁾	225
합 계 ¹⁾		5,581

1) 유통계카드사(3), 보험대리점(31,152, '19.8월말 기준), 보험계리업(21), 손해사정업(1,328), 보험중개사(145, '19.6월말 기준), 역외투자자문회사(197), 회계법인(164), 사모M&A펀드(3) 등 33,054개 제외

2)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전자금융업자 중 부가통신업자(21)와 증권사(13) 중복 제외

3) 금전대부업(13), 대부채권매입추심업(395), 금전대부·채권매입추심업(640), P2P연계대부업(227)

4)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퇴직연금사업자 48개사 중복 제외(은행, 보험, 금융투자, 기타 부문에 포함)

5)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14개사 중복 제외(은행, 중소서민금융, 보험, 전자금융업자 부문에 포함)

6)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5개사 중복 제외(혁신금융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부문에 포함)

붙임 2 2020년도 종합검사시 핵심부문

※ 밑줄은 2019년도 대비 변경된 부분

권역	대분류	핵심부문
은행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고객안내자료, 광고 등 영업행위 준수 체계 적정성 구속성 금융거래 등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운영실태 적정성 KPI운영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재산상 이익제공 업무의 적정성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적정자본 유지 여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적정성
보험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등 불완전판매 여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여부 등 보험금 지급업무의 적정성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준법활동,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성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및 거래절차의 공정성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RBC 비율 관리,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립 등 부채관리의 적정성
증권사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결합증권,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신규 상품의 판매과정 및 영업행위 준수체계 적정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과정의 적정성 및 불건전 영업행위여부
	내부통제·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규 영위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증권회사 부동산투자의 규모별, 유형별 리스크 관리실태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 운용 및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권역	대분류	핵심부문
자산 운용사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반한 운용행위 여부 • 고유·고객재산 간, 고객재산 상호 간 이해상충 발생 여부 • <u>펀드 자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투자자 정보제공의 적정성</u> • <u>펀드 유동성 관리의 적정성</u> • <u>판매사의 운용지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u>
	내부통제·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체제 등 위험관리의 적정성 •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및 소송·분쟁 발생 관련 자기자본의 적정성
여전사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감축 정책 및 반복·동일 민원 처리의 적정성 • 마케팅 비용 등 고비용 영업확대에 따른 수익구조의 적정성 • <u>전화마케팅을 통한 상품판매 등 비대면 영업 내부통제 적정성</u> •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 합리화 관련 TF 결과 이행실태
	내부통제·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배구조 운영 적정성</u> • <u>개인신용정보 관리의 적정성</u> • 카드모집인 관리 및 수수료 지급실태 적정성 •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자체 감사활동의 적정성 • 대주주 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변동 및 자금조달 환경변화에 대응한 유동성 관리실태 • DSR 대출심사 업무활용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실태 • 가계대출잔액 관련 감독목표 달성 이행실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	감독총괄국
연 락 처	-	02-3145-8290